

사찰대상 사기 '극성'

서적등 구매강요 늘어...교계 기자 사칭도

지난달 중순 경남 신창 지프사 주지스님에게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신이 모 중앙 일간지 전국부 기자라고 소개하며 잡지구독을 요구했다. 주지스님이 구독을 거부하자 그는 "다른 사찰은 협조가 잘 되는데 왜 스님은 비협조적이나. 만약 구독 하면 협조가 잘 되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고 협박했다. 주지스님은 전화를 끊었다. 결국 그는 공양주보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독 신청을 받아냈다. 확인결과 이 지역 여러 사찰이 이같은 방법으로 잡지구독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고 해당 일간지에서는 "그런 기자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일간지가 발행하는 잡지 외관사원으로 추측된다.

최근 사찰을 상대로 서적·상품 구매, 잡지구독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 사찰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이 들은 물품의 판매를 위해 기자 불교단체 간부 등의 신분은 사칭하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MF 체제 이후 각종 범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사찰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산청의 또다른 사찰의 경우 주문도 하지 않은 고가의 책 한권이 배달되기도 했다. '신도가 보 시했는지' 하고 받았으나 며칠후 책값을 내라는 영수증이 배달됐다. 해당회사에 문의를 하니 "책 을 구입했으니 배달된 것 아니냐"며 구입을 강요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되겨져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대구의 한스님은 "날이 갈수록 외관원들의 전화와 방문이 급증 해 주문행정을 제대로 볼 수 없 을 정도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불교단체에서 나왔다' '불교계 신문기자다'라며 희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불교서적과 용품 등을 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교도가 난입해 망치로 훼손시킨 불상모습(원내).

보덕사 철불 망치로 훼손

경찰, 현행법 체포-훈방-재검거 소동

법당에 난입해 망치로 불상을 손상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20대의 이교도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훈방조치 했다가 사찰측이 항의하자 다시 검거했다. 3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 보덕사(주지자인)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25세 청년이 법당에 침입해 30분동안 철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방배3동 파출소 관계자는 "범인이 특정종교의 광신도로 보여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풀어줬으나 뒤늦게 불상파손 등의 사실을 알고 다시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덕사에 따르면 범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찰에 찾아와 찬송가를 부르고 스님에게 성경책을 보라고 강요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용의자 김정호씨는 경찰수사에서 "내 이름은 예수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뉴스

한일종교인 국토순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7월31일 경주 분황사에서 하동 쌍계사까지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반성과 회의를 촉구하는 '생명과 평화의 제2차 한일 제 종교인 국토순례'를 실시한다. 불교인권위원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스님과 일본 묘법사 스님 60여 명이 참여한다.

무료급식소 후원금전달

맑고향기롭게는 5월 한달간 본부 사무실 건물외벽에 달았던 '이웃을 위한 연등'의 수익금 2백30여만원을 대전 지체원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무료급식소 개설준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금련회 수록대제 봉행

부산지역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인 금련회(회장 지원)는 5월30일 부산 수영만에서 제18회 호국영령 천도제 및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3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화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법안에서 찾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록대제 후 해군 3함대 소속 함정으로 수영 앞바다에 나가 거북방생법회도 실시했다.

부산시검 검사등 고소

부산 금선사(주지 유초)는 부산지방 검찰청 안락관경사와 김일일 악력관 검사를 계정에 대해 1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금선사는 2명의 피고인외에 5월16일 금선사에 난입했던 11명의 수사관 등도 함께 고소했으며 검찰이 공사장 인부들의 신고만 일방적으로 믿고 사찰에 난입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을 하도록 방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금선사 사태해결을 산하기구인 부산불교교구수호협의회에 일임했다.

'군승규정' 제정 추진

조계종포교원 군법사 인사파동 조사 확대

군법사 인사파동과 관련해 조계종포교원이 육군본부에 인사조안을 제출한 김달환법사를 조사한 데 이어 인사초안에 문제를 제기한 법사들에게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김달환법사가 위관급 법사의 법당배속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선정이었으며 보복성 및 측근인사를 부인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원자를 우선 배치한다는 육군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군승단 정기총회에서 장기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법사 배치를 전산분류에 의한 것이라며 보복성 및 측근인사를 부인했다. 포교원은 인사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승단에 대한 포교원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키로 하고 군승단칙보다 상위규정인 '군승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규정'에는 인사 등 군승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포교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방침이다.

종무행정 SW 이및교 등 4종 판매경쟁

올 상반기 사찰 행정 도우미인 종무프로그램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과거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늘어나고 가격도 떨어져 사찰 종무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장사, 이및교, 보리수, 상황종무관리 등 4종의 프로그램은 신도·인도·불사·연도·회계·생일·일정·명함·설비자료 등 주요 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또 기존 제품들의 업그레이드(기능추가) 버전이며 윈도우95를 사용하는 펜티엄급 컴퓨터에 적합하게 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구형 컴퓨터를 보유한 사찰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또 윈도우 NT로 서버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고 있는 대규모 사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무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각 제품들의 독창적인 기능과 해당 사찰 종무와 보유 컴퓨터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조계종 '포교방법론' 올내 발간

영문판 '한국불교'도

포교 관련 교육교재가 편찬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포교방법론>을 올해 안에 발간, 보급키로 했다. 또 <포교방법론>에 이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계층별 포교자료집 및 설명론, 상담기법 등 각종 분야의 자료집도 매년 2~3권씩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연구실은 10일 편찬회의를 열어 집필자를 확정한다. <포교

방법론>은 포교에 대한 개념, 한국의 포교현실, 실행 기법, 상담, 계층 및 특수포교방안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 사무국장 범성스님, 김경호 연구과장, 중앙종회 포교본과위원장 지홍스님, 승가대 총신스님, 성우스님, 김용철교수, 동국대 화랑스님 등 종단의 포교관련 소임자와 종립대학에서 포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다.

포교연구실 김경호과장은 "전법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종단에서 이에 대한 자료제공이 적었다"며 "연차적으로 포교관련 교재 및 자료를 발간하여 일선포교를 뒷받침 할 수 있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은 또 외국인교 포 2, 3세들에게 한국불교의 문화와 독특한 전통을 알리기 위해 영문판 <한국불교>를 올해 안에 편찬키로 하고, 연등불교국제제에 집필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조계종 노숙자합숙소 2곳 더 추진

서울·부산 보현의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4월22일 개원한 서울 용산구 서계동 '보현의 집'에 이어 서울 종로구 수송동과 부산에 제2·제3의 '보현의 집'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직 노숙자 합숙소는 '서울시립 영등포 근로자합숙소' 등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미 지난 5월말에 사무실을 마련한 서울 수송동 제2 '보현의 집'은 개인 예정일이 8일에서 6월중순으로 늦춰졌다. 이유는 1, 2층 건물(모두 1백여평)의 난방 장치 설치와 관련한 건물주와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건물임대료·기자재비·운영비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급식비 지원 등으로 운영될 수송동 제2 '보현의 집'은 숙박 및 아침 식사 제공, 종합상담, 실직가정 결연후원 등의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게 된다.

1일 부산시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부산 보현의 집'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역 건너편인 동구 초량동 1209-16번지 건물 1층에 설립계획인 '부산 보현의 집'은 2백평 규모의 숙박·상담·사무실 등을 갖추고 30~60세의 실직자들에게 1회 20일간 숙식을 제공하게 된다. 종소요 예산(7개월 기준)은 인건비, 임대료, 개보수비, 운영비 등 5억7천4백8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故윤이상가족 귀국 추진위 '결성'

평불협·불교인권위

정부가 국가의 허락없이 북한을 방문한 해외거주 한국인의 귀국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불교계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 가족들의 귀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불교연합회는 불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故 윤이상 선생가족 귀국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설정·법타)를 출범시켰다. '故 윤이상선생 가족 추진위'는 독일산 불교도로 알려진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는 동양문화

의 정신세계에 뿌리를 둔 창작활동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8월15일 을 전후해 '윤이상 선생 음악세계 조영 세미나' '윤이상 가족 귀국 환영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위에는 설정(조계종 총회위원장) 설정(불교사 주지) 법타(평불협 회장) 청화(실천승교회 의장) 지선(백양사 주지) 영담(석왕사 주지) 향적(조계종 교육부장) 효림(보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신광식 KBS연구위원 지현정사(진각복지회 회장) 연기연 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 등기연 변호사 등 교계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치권이 은둔 선

거버넌스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은 과연 그들에게 국민국복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여론이었다. 실제 지방선거에서 52.6%라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굶직한 선거가 모두 끝난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경제위기 극복에 정력으로 뛰어들어야 할 과제만이 남아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교계 차원에서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른바 선거때면 반쪽, "불자입네"하는 '철새 불자'에 대해서이다. 이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갔다가 또다시 불교로, 표를 향해 오락가락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다.

지난 90년 서울에 최초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절을 창건한 L씨는 2년뒤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대선에 패배한 그는 그 원인을 철저히

순, 또다시 서울 J사 신도단체 연합회장에 당

당히 취임했다.

따라서 종합 정리해 보면, 그는 불자에서 개

신교인으로 또다시 불자로 종교가 바뀐셈이다.

이런 일을 거론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개

종에 대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구나

종교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우려하

는 점은 시기적으로 정치적

선거가 계기가 되어 종교가

변하고 종교가 거론되는 사

안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점은 종교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에 예측되어서도

안된다. 참이다. 종교는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철새불자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사

라지기를 기대해본다.

“선거때만 불자”

신도들 나아가 불교계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고 전했다. 그리고 93년 그가 개신교로 개종


했다는 소식이 개신교계 한 신문에 보도됐

이와 함께 그가 창건한 절은 각종 범죄가 일

시에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이후 그

는 지지세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5월 중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동의보감(상)
동의보감(하)
동의보감 원본
정가 전3권: ₩650,000원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문, 람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중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약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는 분 강복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불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지압·미용 수록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3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세계10대대학출판사/6,000여권의 달달 케이스 박용택 문학전집 전15권 정가 ₩120,000

월간 박용택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는 저구름이 전 5권
- 이름다운 이 죽음을 전 5권
- 정신의 민중 울음 전 5권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일,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불로초(무궁화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영양학, 건강, 수양, 풍상, 생일, 수련,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죽문, 풍수지리, 명당지리, 임춘대길, 승려,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양오문, 직위, 혼수, 명문, 풍가집, 축가, 축사, 연일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세계10대대학출판사/6,000여권/내지 달달이산 및 목재사(목재)가득 달달이산/표지 고급케이스 영구보존 가능 225x280x35x4mm/총부재 15kg / 정가 : ₩900,000

특정할인판매

구입방법

- 정가 : ₩590,000
- 특별할인가 : 148,000
- 할부가 : 49,500x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편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성물질의 성분인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 속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맞증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적용하면, 힘의 흐름, 혈의 흐름,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밧값이 걸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갈당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체혈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무릎까지 결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체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착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수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